

## 신라 興輪寺의 伽藍 배치 문제

A Reexamination of the Layout of Heungyoon Temple of Silla

---

저자 (Authors)	金昌鎬 Kim Chang-ho
출처 (Source)	<a href="#">신라문화 20</a> , 2002.8, 139-152 (14 pages) <a href="#">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20</a> , 2002.8, 139-152 (1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a>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0735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07354</a>
APA Style	金昌鎬 (2002). 신라 興輪寺의 伽藍 배치 문제. 신라문화, 20, 139-15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30 14:3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興輪寺의 伽藍 배치 문제

金 昌 鎬\*

<目 次>

- |                      |                      |
|----------------------|----------------------|
| I. 머리 말              | IV. 통일신라의 가람 배치와 흥륜사 |
| II. 역사 지리적 위치        | V. 맺 음 말             |
| III. 고신라의 가람 배치와 흥륜사 |                      |

[한글 논문요약] 신라에 불교가 전래되어 최초로 세워진 절이 흥륜사이다. 신라 시대 경주는 북천이 자주 범람했는데, 이 때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인 서천변에는 북쪽에 조선 시대의 읍성이 있었으며, 남쪽에 고신라의 고총고분이 있었다. 그 남쪽에 흥륜사가 자리잡음도 같은 맥락이다. 고구려는 1탑3금당식이고, 백제는 1탑1금당식이나, 신라의 황룡사와 분황사가 고구려식이므로 흥륜사의 가람 배치도 1탑3금당식으로 추정된다. 통일 신라초에 2탑1금당식 가람 배치가 새로 나타나는데 흥륜사가 황룡사처럼 1탑3금당식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쌍탑식 등으로 변화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영문 논문요약] The Heungyoon Temple is the first Buddhist temple in the Silla Dynasty. It is assumed that the temple was composed of one stupa and three Buddhist image halls. This inference is made on the basis of the layout of the Hwangyong and Bunhwang Temples, since the three temples were constructed at approximately the same time. There was a big change in the layout of Buddhist temple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It is also assumed that the Heungyoon temple was probably reconstructed sometime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Unfortunately, however,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know how the layout of the Heungyoon Temple changed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논문 주제어] 흥륜사, 가람, 탑, 금당, 불전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 교수

## I. 머리말

신라에 불교가 전래되고 나서 절이 만들어졌다. 초기의 절은 茅屋이나 굴에서 생활했지만 점차 기와 제작 기술을 포함한 건축술에 관한 많은 지식이 도입되어 금당, 강당 등을 갖춘 가람이 출현하였다. 이 시기의 가람 배치 등에 대한 연구 성과는 거의 없다. 가람 배치의 윤곽을 엿볼 수 있게 발굴 조사된 사원은 황룡사와 분황사가 고작이다. 신라 최초 사원인 홍륜사에 관한 많은 사료가 『三國遺事』에 실려 있다. 이에 대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으며<sup>1)</sup>, 그 가람 배치에 대한 가설도 제기된 바 있다<sup>2)</sup>

여기에서는 선학들의 업적과 문헌 사료를 중심으로 홍륜사의 가람 배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홍륜사의 역사 지리적인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고신라의 가람 배치를 발판으로 홍륜사의 가람 배치에 대해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통일신라의 가람 배치를 문헌과 비교해서 홍륜사 가람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 II. 역사 지리적 위치

경주는 분지로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곳 가운데 하나로 한 나라의 수도가 될 만한 곳이다.<sup>3)</sup> 다 아는 바와 같이 경주의 지형은 암곡에서 내려오는 북천(동천, 알천)의 수량이 가장 많으며, 서천과 남천도 흘러서 결국 형산강에서 만나게 된다. 북천, 서천, 남천은 분지 전체를 3면에서 감싸고 있는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지리학에서는 흔히 선상지형 지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지형에서는 물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곧 북천의 홍수로 봉덕사가 덮히게 되어 그 위치를 잘 모른다든지<sup>4)</sup>, 북천의 홍수로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기록<sup>5)</sup> 등이 그 예이다. 북천의 홍수에 대한 극복은 신라 시대에는 아마도 국가적인

1) 김영태, 「신라십성고」 『한국학연구』 2, 1977.

곽승훈,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 변동」, 한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신동하, 「신라 홍륜사의 창건과 변천」 『인문과학연구』 6, 1999.

2) 이강근, 「경주 문화재에 대한 재인식—신라 최초의 절 홍륜사를 중심으로」 『경주문화』 4, 1998.

3)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마립간 시대의 신라를 비롯한 영남 각지에서는 고분, 토성, 하천이 세트를 이루는 곳에 나라가 형성되었다. 경주 분지는 이 3박자를 갖춘 대표적인 곳으로 물이 풍부해 농업 생산력이 높아서 고대 국가가 성장될 만한 지역이다.

4) 현재 경주세무소 북쪽 근처로 보고 있다.

5) 『三國史記』, 원성왕 1년조.

과제로 판단된다. 가령 황룡사의 발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늪지를 메워서 사찰을 지었다고 한다. 이는 신라 시대의 치수의 예로 판단된다.

북천의 홍수가 넘쳐나도 경주 분지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로 보아야 될 것인가? 경주의 서천을 따라서 북쪽에 조선시대 읍성이 있었던 지역과 읍성의 남쪽 신라 시대의 고총고분군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던 지역이 그 후보지로 보인다. 신라 시대의 도시 계획도 경주의 서쪽 부분이 일찍 실시되었다고<sup>6)</sup> 한다.

고총고분군의 남서쪽에 신라 최초의 공식적인 사찰인 홍륜사가 들어서게 된 것도 경주의 지형적인 특성과 부합되는 듯하다.

### Ⅲ. 고신라의 가람 배치와 홍륜사

고신라의 가람 배치를 알기 위해 우선 삼국 시대의 가람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고구려는 372년 불교의 전래 이후에 성문사와 이불란사가 창건되었고<sup>7)</sup>, 광개토왕 때에는 평양에 9사가 창건되었다고 하나 이들 유적은 아직까지 발견된 바 없다. 평양 청암리사지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1탑3금당식 가람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의 정릉사지도 발굴 조사가 되었지만 고려 시대의 유물과 유구가 뒤섞여 있어서 고구려 시대의 가람 배치를 잘 알 수가 없다.

백제는 384년에 불교가 전래되었으나 한성 시대의 가람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다. 475년 웅진성 천도 이후에 공주에 있는 대통사 등이 알려져 있으나 가람의 배치는 유구의 훼손이 심해 잘 알 수가 없다. 538년 사비성 천도 이후의 가람 배치는 부여의 군수리사지, 정림사지, 능산리사지, 부소산성사지, 금강사지와 익산의 미륵사지가 알려져 있다. 정림사지 등의 가람 배치는 1탑1금당식이다. 익산의 미륵사지는 3원식(3탑3금당)으로 삼국 시대에서는 다른 예가 없는 유일한 예이다<sup>8)</sup>.

신라는 527년 불교 공인 이래로 진흥왕 때(544년)에 홍륜사가 창건되었고, 566년에 황룡사, 634년에는 분황사가 각각 조영되었고, 그밖에도 많은 사찰이 만들어졌다.<sup>9)</sup> 이

6) 藤島亥治郎의 가설이다.

7) 집안의 동대자을 이와 관련시키기도 하나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8) 이에 대해서는 미륵사 창건의 역사적 의미 등을 중심으로 별도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9) 박방룡, 「신라도성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p. 156에는 고신라의 사원이 경주에 30개가 있었다고 한다.

가운데 가람 배치가 알려진 것은 황룡사와 분황사뿐이다. 이들은 모두 1탑3금당으로 고구려의 가람 배치를 따르고 있다. 황룡사와 분황사에 앞서서 지어진 홍륜사는 『三國遺事』, 興法, 阿道基羅조에 의하면,<sup>10)</sup> 절은 茅屋이라고 하며, 또 최초의 신라 불교 전래가 고구려의 승려에 의해 된 것임으로 고구려의 가람 배치를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sup>11)</sup> 이 때의 가람 배치에서는 아직까지 신라에서는 석탑이 출현하기 이전이므로 목탑이나 전탑일 가능성이 있다. 신라에서의 전탑 수용 시기 등을 고려할 때<sup>12)</sup>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 『三國遺事』, 紀異, 桃花女鼻荊郎조에 “홍륜사 남쪽에 門樓를 세우게 하고 … 길달문이라고 하였다”란 구절에 근거해 이를 홍륜사의 남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13)</sup>

고신라 시대 홍륜사 금당의 주존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다.

① 良凶는 이로 말미암아 불교를 독실히 믿어 한평생 게을리 하지 않았다. 홍륜사 吳堂의 주존인 彌陀尊像과 左右菩薩을 塑像으로 만들고 아울러 金色으로 벽화를 그 당에 그렸다(『三國遺事』, 神呪, 密本摧邪조).

② 眞智王 때 와서 홍륜사의 眞慈가 언제나 堂主 弥勒像 앞에 나아가 소원을 빌면서 맹세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花郎으로 化身하셔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제가 늘 부처님의 얼굴을 뵈옵고 곁에서 시중들도록 하여주십시오”(『三國遺事』, 塔像, 弥勒仙花未尸郎眞慈師조).

①에 나오는 홍륜사 불보살상 조성의 주인공인 김양도는 661년에 대아찬으로서 백제 사비성 공격에 참여하였고,<sup>14)</sup> 662년에 당의 군사들에게 군량을 운반하는 임무를 띠고 평양 방면으로 보내졌으며,<sup>15)</sup> 고구려 멸망 후 당이 신라를 아우를 계획을 세울 때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그곳에 억류되어 670년에 감옥에서 죽었다.

10) 아도기라조에 실린 아도본비를 김창호, 『삼국유사』에 실린 아도본비의 작성 연대, 『경주사학』 20, 2001에서는 고려 숙종 때에 세워진 비로 해석하였으나 『海東高僧傳』에 아도본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음을 은사 허홍식선생님으로부터 교시를 받았다. 여기에는 박인량의 『수이전』이 인용되어 있어서 10세기경에 아도본비가 지어졌을 뿐, 그 내용으로 보아 실제로 건립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11) 고신라의 가람 배치는 고구려식이나 여기에 사용된 기와는 백제식이다. 이는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신라에서 고구려식 수막새가 나오고 있으나 고구려에서는 없는 자방이라 신라의 수막새가 형성되고 난 뒤에 신라에서 고구려의 영향하에서 만든 기와로 판단된다.

12) 경주에서 전탑의 출현은 대개 600년경으로 보고 있다.

13) 경주시, 『고도경주』, 1982, p. 221.

14) 『三國史記』, 태종무열왕 8년조.

15) 『三國史記』, 문무왕 2년조.

①에 나오는 오당에 대해서는 금당의 잘못으로 보거나<sup>16)</sup> 法堂이란 뜻으로 해석하고서<sup>17)</sup> 弥陀尊像을 弥勒尊像으로<sup>18)</sup> 고쳐서 해석하기도 하였고,<sup>19)</sup> 吳堂을 奧堂 곧 금당 뒤쪽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講堂으로 보고서<sup>20)</sup> 홍륜사를 ②의 사료에서 금당 주불이 미륵상인 점에서 법상종과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三國遺事』에서는 金堂이란 용어가 10번쯤 사용되고 있어서 오당을 금당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②에서 진지왕 때(576~578년) 이미 금당에 미륵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미타3존의 소상을 만드는 점도 해석키 어렵다. 『三國遺事』에서 사용되는 이해하기 쉬운 강당이란 용어 대신에 吳堂이 奧堂을 거쳐서 강당으로 연결되는 점도 이상하다. 여기에서는 ②의 사료에 따라서 홍륜사 강당의 주불은 미륵상으로 보고자하며, 김양도가 만들어 바친 아미타3존상은 오당이란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 IV. 통일신라의 가람 배치와 홍륜사

통일신라가 되면 신라식 가람 배치라 할 수 있는 강당, 금당, 쌍탑, 남문(중문)의 쌍탑식 가람이 등장한다. 사천왕사, 감은사, 망덕사, 고선사, 천군리사지 등의 가람이 이에 해당된다. 이 쌍탑식 가람 배치는 고구려나 백제 등에서는 없었던 신라에서 형성된 가람 배치이다.

이러한 가람 배치 가운데 사천왕사지의 가람을 750년 이후로 본 가설이 제기되었다.<sup>21)</sup> 이의 중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통일초의 가람 배치에서는 강당 양쪽에 감은사지의 예와 같이 회랑이 아니라 별도의 건물지가 붙는다.

둘째로 左經樓와 右鐘樓(또는 좌우경루)는 750년 이후에 나타나고, 이 종루와 경루의 평면이 정방형의 건물로 개조된 시기는 통일신라 말기 정도로 추정하였다.

경루와 종루는 황룡사와 불국사의 예에 따르면 중문과 탑 사이의 좌우에 배치되고

16) 이기백, 『신라사상사연구』, 1986, p. 84.

17) 이재호 역, 『삼국유사』, 1982, p. 560.

18) 『三國遺事』에서 미륵존상의 용어는 3번 나오고, 석가3존상, 장륙존상, 미타존상 등의 예도 있다.

19) 미륵존상으로 고친 것은 최남선이래 이병도, 이기백, 이재호, 김영태 등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후술할 심성에 아미타신앙과 관련된 혜숙, 혜공, 원효, 자장의 4명이나 포함된 점이 문제이다.

20) 이강근, 「앞의 논문」, 1998, p. 62.

21) 김정기, 「경주 사천왕사 가람고」 『윤무병박사 회갑기념논총』, 1984.

있다. 사천왕사의 경우에는 금당과 강당 사이의 좌우에 각각 배치된 3×3칸의 건물지도 종래에는 대개 좌우경루로 보아왔다. 그러면 좌우경루의 위치가 중문과 탑 사이, 금당과 강당 사이의 두 군데가 된다. 최근에 들어와 사천왕사지의 금당과 강당 사이의 두 건물지 초석(각각 12개)에는 모두 원통형의 구멍이 뚫여 있어서 문두루 비법과 관련된 건물로 본 가설이 제기되었다.<sup>22)</sup> 신라의 건물지에 있어서 모든 초석에 구멍이 천공된 예가 없어서 특수한 용도의 건물로 본 가설은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sup>23)</sup>

강당의 좌우에는 회랑이 아닌 별도의 건물지가 있어야 된다는 가설은<sup>24)</sup> 사천왕사의 강당지 쪽은 이미 파괴가 심해 추정 복원을 하였고,<sup>25)</sup> 1929년 당시에 사천왕사 가람 배치를 그릴 때도 강당 양쪽에 별도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인식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흥륜사의 가람 배치에 대해 조사할 차례가 되었다. 중대의 흥륜사에 대한 기록은 태종무열왕4년(657년)에 흥륜사문이 저절로 무너졌다는 기록과<sup>26)</sup> 문무왕 11년(671년)에 흥륜사 남문이 흔들렸다는 기록이<sup>27)</sup> 있다. 이들 사료는 흥륜사의 쇠락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될 뿐<sup>28)</sup> 가람 배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대의 흥륜사에 대한 비교적 많은 기록이 있으나 가람 배치와 관련된 것을 뽑아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東壁坐庚向泥塑 我道 猷觸 惠宿 安舍 義湘 西壁坐甲向泥塑 表訓 蛇巴 元曉 惠空 慈藏(『三國遺事』, 塔像, 東京興輪寺十聖조).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다투어 흥륜사 殿塔을 돌면서 복을 빌곤 하였다. 원성왕 때(785~798년) 화랑 金現이 밤 깊도록 전탑 주위를 돌고 있는데 … 흥륜사 간장을 바르고 흥륜사 나팔소리를 들으면 나올 것이다(『三國遺事』, 感通, 金現感虎조).

제54대 경명왕 때(917~924년) 흥륜사의 남문 및 좌우 회랑이 불에 탔으나 수리하지 못하였는데, 정화, 홍계 두 승려가 장차 수리하려고 시주금을 모우고 있었다. 921년 5월 5일에 제석천이 左經樓에 내려와 열흘 동안 머무르니 이에 殿塔, 풀과

22) 장충식, 「신라 남산유적의 제문제(1)－사천왕사지를 중심으로」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17, 1996.

23) 김창호, 「신라 밀교사원 사천왕사의 역사적 위치」 『밀교학보』 3, 2001, p. 91.

24) 김정기, 「앞의 논문」, 1984.

25) 김정기, 「앞의 논문」, 1984, p. 322 참조.

26) 『삼국사기』, 태종무열왕 4년조.

27) 신동하, 「앞의 논문」, 1999, p. 23 참조.

28) 신동하, 「앞의 논문」, 1999, p. 24.

나무, 흙과 돌 등이 모두 이상한 향기를 발산하였다. 오색 구름이 절을 덮었으며 남쪽 못에 있는 물고기와 용이 기뻐서 날뛰었다. …건축기술자들이 스스로 찾아와 며칠이 못되어 완성시켰다(『三國遺事』, 塔像, 興輪寺壁畫普賢조).

먼저 十聖조부터<sup>29)</sup> 해석하면 “동쪽 벽에 앉아서 庚向(서쪽에서 남쪽으로 15도 기운 방위)한<sup>30)</sup> 진흙 소조상은 아도·염촉·혜숙·안함·의상이다. 서쪽 벽에 앉아서 甲向(동쪽에서 북쪽으로 15도 기운 방위)한 진흙 소조상은 표훈·사과·원효·혜공·자장이자”가 된다. 이들의 배치에 대해 입적순임을 근거로 동벽에는 가장 남쪽에서부터 아도·염촉·혜숙·안함·의상의 순서로, 서벽에는 가장 남쪽에서부터 자장·혜공·원효·사과·표훈의 순서로 각각 배치된 것으로 해석한 견해가 있다.<sup>31)</sup> 이렇게 풀이하면 동쪽 벽과 서쪽 벽에서의 기재 순서가 서로 반대가 된다. 오히려 동쪽 벽과 서쪽 벽의 기재 순서가 동일하다고 보면 동쪽 벽은 북에서부터 아도·염촉·혜숙·안함·의상의 순서로, 서쪽 벽은 북에서부터 표훈·사과·원효·혜공·자장의 순서로 각각 기재되었다고 해석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십성 가운데 표훈은 경덕왕 때 활약했던 고승이므로 그 봉안 시기는 혜공왕이후 하대로 추정되고 있다.<sup>32)</sup> 또 십성은 불교 전래에 관련된 아도와 염촉, 불교 대중화와 관련된 원효, 혜숙, 혜공, 화엄종과 관련된 의상, 사과, 표훈 등의 몇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법상종과 선종의 승려가 없다.<sup>33)</sup> 그런데 『三國遺事』, 興法, 原宗興法조에 따르면 817년 이차돈 무덤의 예불향도를 결성한 홍륜사 永秀禪師가 유가승(법상종 승려)으로 알려져 있고,<sup>34)</sup> 909년경에 최치원이 지은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에 나오는 홍륜사의 融善呪師도 법상종의 승려로 알려져 있다.<sup>35)</sup> 홍륜사가 법상종 승려와 관련시켜 보면 십성의 조상 시기를 하대초가 될지도 알 수가 없다.

남은 두 사료에 의하면 홍륜사에는 연못→남문→전탑 등이 있고, 회랑이 둘러져 있으며, 左經樓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殿塔이<sup>36)</sup>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佛殿과 佛塔

29) 십성의 성인은 『三國遺事』, 紀異,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조에 “표훈이후로는 신라에 聖인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란 구절에도 보인다.

30) 이 부분 해석은 이강근, 「앞의 논문」, 1998, p. 63을 참조하였다.

31) 이강근, 「앞의 논문」, 1998, pp. 66~67.

32) 광승훈, 「앞의 논문」, 1998, p. 138.

33) 광승훈, 「앞의 논문」, 1998, p. ( )

34) 김남윤, 「신라 법상종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p. 145.

35) 김창호,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의 분석」 『고문화』 57, 2001, p. 152.

36) 전탑의 예는 홍륜사와 관련한 3예뿐이다. 佛殿이란 용례도 『삼국유사』에 3예가 있고, 같은 책의 기이, 무왕조에는 「殿塔廊廡 各三所創之」란 구절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잠정적으로 불전과 불탑으로 본 이강근, 「앞의 논문」, 1998, p. 68에 따르고자 한다.

을 해석할 수가 있다.<sup>37)</sup> 불전은 보통 부처와 보살상을 안치하는 건물을 말하므로<sup>38)</sup> 금당으로 판단된다. 위의 연못→남문→전탑은 연못→남문→불탑→금당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불탑이 석탑인지 목탑인지 아니면 전탑인지는 알 수가 없다. 『三國遺事』에 탑이 80여 가량 나오고 있으나 석탑은 11예가 나오고 목탑이 1예가 나오고 있을 뿐이다. 탑의 수를 밝힌 구절도 거의 없다. 금당도 『三國遺事』에 10예가 나오고 있으나 불탑과 마찬가지로 그 숫자는 밝히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신라의 홍륜사가 1탑3금당이라면 통일신라의 가람에서 목탑이 계속 보수와 중건 등을 통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금당의 수도 황룡사처럼 3금당이 계속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분황사처럼 3금당이 1금당으로 축소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좌경루의 존재로 우경루 또는 우종루가<sup>39)</sup> 있었다고 판단된다.

종래 홍륜사 금당의 주불을 미륵불 또는 미륵보살로 해석해 왔다.<sup>40)</sup> 그래서 십성이 있는 금당의 주불도 이에 준하여 생각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홍륜사의 십성에는 법상종과 선종에 관련된 승려가 없어서 그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듯하다. 다아는 바와 같이 법상종에 있어서 금당에는 미륵불, 강당에는 아미타불이 각각 안치된다.<sup>41)</sup> 십성에는 태현, 경홍 등의 법상종 승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홍륜사 금당에 십성을 동벽과 서벽에 각각 5명씩 배치하면서도 금당의 주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 때의 금당 주불이 미륵불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본다.<sup>42)</sup>

사료의 「東壁坐庚向泥塑」과 「西壁坐甲向泥塑」에서 庚向과 甲向은 나침반을 사용한 시기의 용어로 보인다. 나침반을 사용치 못한 통일신라시대 건물까지는 보통 진북을 가리키고, 이를 사용한 고려 시대의 건물은 자북을 가리킨다고 한다.<sup>43)</sup> 경향과 갑향은 고려 시대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래 이 기사를 『三國遺事』의 찬술 체제에 나타나는 일정한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 찬술자인 일연이 기록한 내용이 라기 보다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하거나<sup>44)</sup> 일연이 직접 답사하여 살피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sup>45)</sup> 일연의 직접 답사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37) 이강근, 「앞의 논문」, 1998, p. 68 등.

38) 길상 편저, 『불교대사전』, 2001.

39) 『호산록』에 1244년의 興輪寺大鐘銘并序에 근거해 신라시대에 종루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신라와 고려의 종의 크기 차이로 보면 성립되기 어렵다.

40) 통일신라시대의 주불도 그렇게 이해해 왔다.

41) 문명대, 『한국조각사』, 1980, p. 196.

42) 아마도 홍륜사는 여러 종파와 관련이 있지만 하대에는 법상종과의 관련도 상정된다.

43) 윤무병선생님의 교시를 받았다.

44) 이기백, 「삼국유사의 편목 구성」 『불교와 제과학』, 1987, p. 988.

45) 김상현, 「삼국유사의 역사방법론적 고찰」 『동양학』 23, 1993, pp. 4~5.

적어도 그의 문도 등이 직접 와서 조사한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sup>46)</sup>

「東壁坐庚向泥塑」과 「西壁坐甲向泥塑」에서 금당이 동서향에서 15도 甲庚向으로 기울어져서 진흙 소조상도 그 방향인지<sup>47)</sup> 아니면 금당 자체는 옆으로는 동서향 곧 전면은 정남향이지만 진흙 소조상만이 동서향으로 긴 건물의 동벽과 서벽의 5구가 각각 15도 갑경향으로 기울어져서 마주 보고 있는지 여부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금당 자체가 15도 기울었다고 특기할 정도로 표시가 나는 것은 아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금당의 동서향과 진흙 소조상과는 15도가 갑경향으로 기울어져서 마주 보는 특이한 배치가 되고 사료 자체에서도 진흙 소조상이 15도 갑경향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해석되어 여기에서는 후자로 본다.<sup>48)</sup>

## V.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 시대의 홍륜사 가람 배치에 대해 논의해 온 바를 간단히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신라 시대 경주는 북천이 범람하였는데 이 때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인 서천변에는 북쪽에 조선시대의 읍성이 있었으며, 그 남쪽에 신라 시대의 고총고분이 있었다. 그 남쪽에 신라의 최초 사원인 홍륜사가 자리잡음도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삼국 시대의 가람 배치는 개괄하였다. 고구려는 1탑3금당식이고, 백제는 1탑1금당식이고, 신라는 30여 곳의 가람중 발굴 조사된 황룡사와 분황사의 가람 배치가 1탑3금당식이므로 홍륜사의 가람 배치도 1탑3금당식일 것으로 추측하였고, 탑은 목탑으로 보았다.

그 다음으로 통일신라초에 2탑1금당의 가람 배치가 새로 나타나는데 문헌을 중심으로 홍륜사 가람 배치에 대해 검토하였다. 홍륜사가 황룡사처럼 1탑3금당을 유지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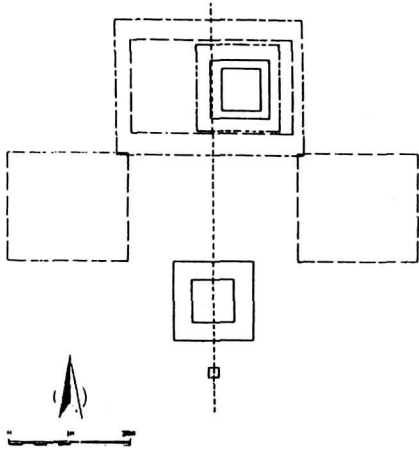
46) 『三國遺事』에 있어서 황룡사, 백옥사 등 수많은 고려 시대에 東京이라 불린 사찰을 언급하면서도 동경이란 용어는 목차에는 사용된 바 없다. 목차의 興輪寺壁畫普賢조에도 동경이란 용어는 없다. 『三國遺事』 본문에도 처용가의 예를 포함해 東京이 3예가 나오고 있다. 왜 東京興輪寺十聖조에 만 동경이란 용어를 굳이 목차에서조차 밝히고 있을까? 이 심성조가 『三國遺事』 가운데에서 가장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을까? 홍륜사에 있어서 『三國遺事』, 塔像, 興輪寺壁畫普賢조에 따르면 921년에 그린 보현보살 벽화는 13세기에도 남아있었다고 한다. 홍륜사가 신라 최초의 가람으로 중고, 하대에는 국왕과 관련되나 중대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흥미롭다.

47) 이강근, 「앞의 논문」, 1998, p.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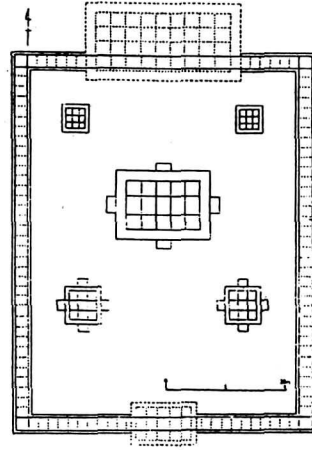
48) 이렇게 15도 기울게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다리기로 한다.

아니면 분황사처럼 1탑1금당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아울러 십성 배치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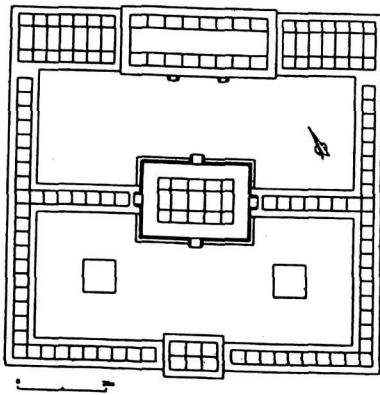
홍륜사의 가람 배치는 아직까지 지표 조사나 발굴 조사를 통한 복원안이 제시된 바 없어서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앞으로 발굴 조사 등을 통해 확실한 실체가 알려져 문헌 사료와 함께 연구되어 수정 보완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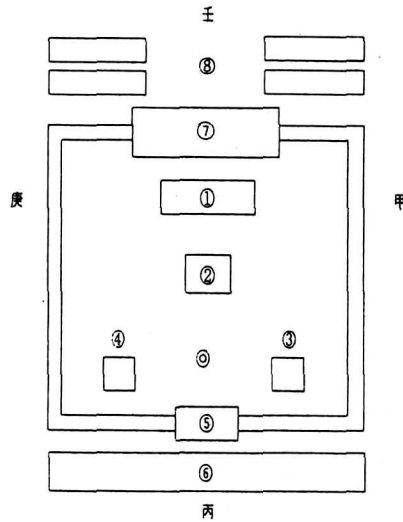
경주 분황사지



경주 사천왕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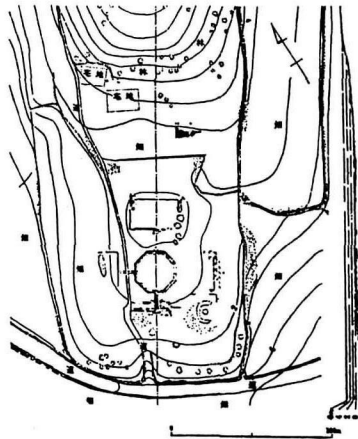


감은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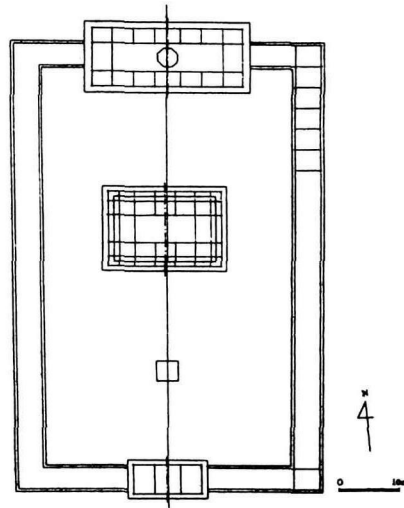


- 법례 ㉑석등 ①금당 ②불탑  
 ③경루 ④종루 ⑤남문  
 ⑥남지 ⑦강당 ⑧승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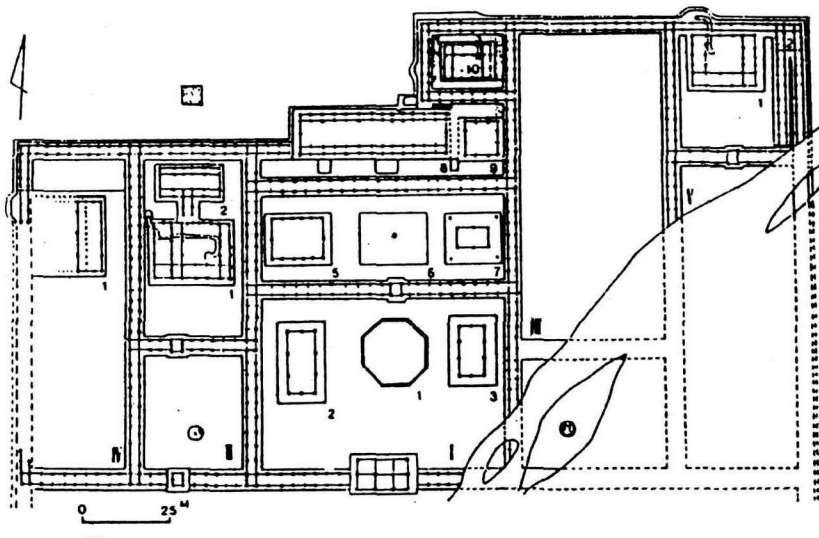
흥륜사 가람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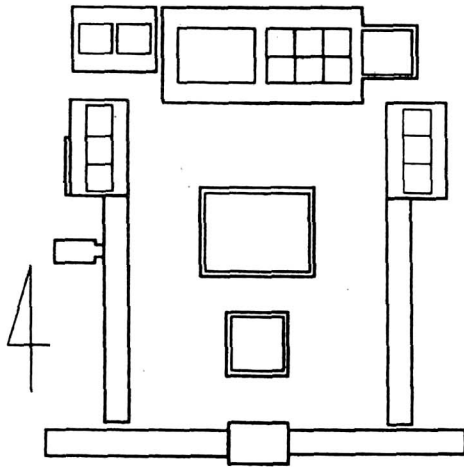
평양 정암리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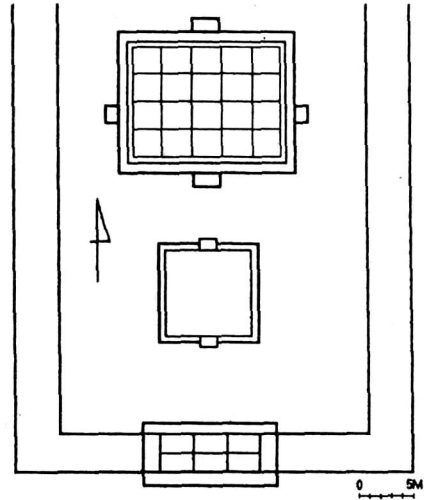
부여 정림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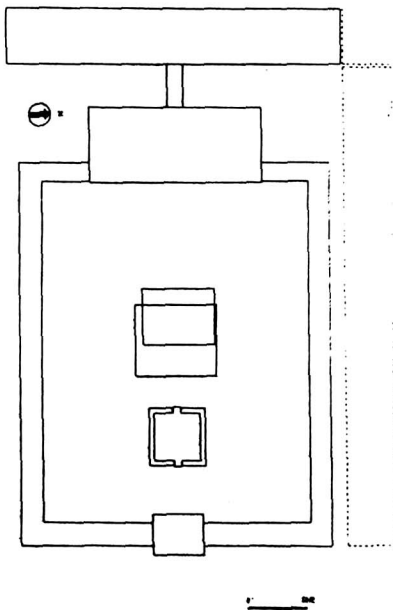
평양정림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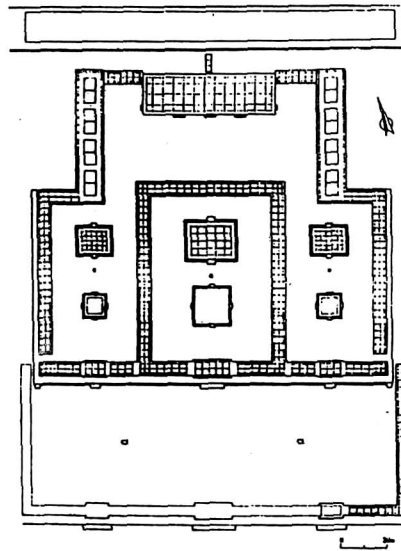
부여 능산리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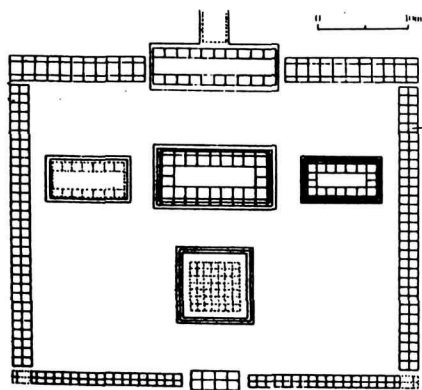
부여 부소사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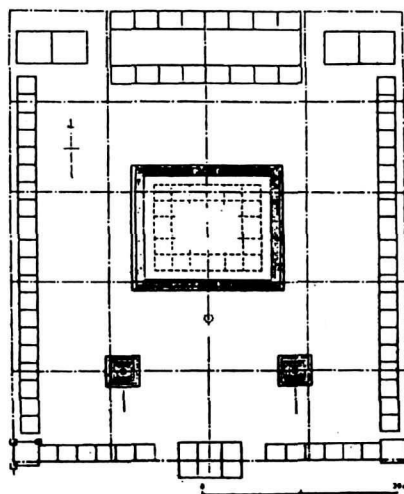
부여 금강사지



익산 미륵사지



경주 황룡사지



경주 천군리사지